

농촌 거점면 지역의 중심기능 이용성향 분석

조은정 · 최수명* · 김영택** · 고영배*** · 임창수* ****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전남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진흥청

An Analysis on Consumer's Attitude to Central Functions in Center Villages of Hub-myun

Cho, Eun-Jung · Choi, Soo-Myoung* · Kim, Young-Taek**
Go, Young-Bae*** · Lim, Chang-Su* ****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

*Dept. of Biosystems and Agricultur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

***Korea Rural Corpo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This study aimed at analysing on consumer's behaviour to central functions in center villages of Hub-myun. Consumers in the center villag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residents in the center village and in the hinterland area, visitors. Through the interview works on the customers in 8-pilot project sites and differential analysis works of answered results, consumers' attitude in the center villages were grouped into two types; self-sufficient one and higher center-dependent one.

Key words : Central Function, Center Village, Consumers' Attitude

I. 서 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지속되어온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배후마을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거점 공간 역할을 담당하는 면소재지의 기능은 더욱 축소되었다. 이는 다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외부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촌 중심지역의 기능 저하와 배후마을의 침체가 서로 맞물려 농촌지역 전체의 악순환 궤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도움이 중요한 농촌개발대상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면급 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농림부, 2006).

그러나 거점면 소재지에 대한 정책적인 투입에 앞서 현재 면소재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 이용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인 정비방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우선 면소재지가 농촌의 거점 공간으로서 얼마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용자의 유형을 면소재지 주민, 배후마을주민, 방문자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중심기능 이용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거점면 역할 정립 및 연구방법

1. 거점면의 기능과 역할

Corresponding author : Choi, Soo-Myoung

Tel : 062-530-2154

E-mail : ruralpl@jnu.ac.kr

1) 거점면의 개념

거점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지리학에서는 ‘지리상의 어느 지점이나 지리적 중심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면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시(市)나 군(郡)에 속한 지방 행정구역단위의 하나로 몇 개의 리(里)로 구성된 중심지역으로 정의되며 선행연구에서의 ‘면소재지’는 일반적으로 소도읍과 농촌중심지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거점면 지역의 개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의한 “지역 거점공간으로서 역할 수행과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 거점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규모 3,000인~10,000인 수준의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면”으로 한다.

2) 거점면의 기능과 역할

Table 1 농촌중심지의 중심성 분류 기능

연구자	중심성 분류 기능
내무부(1977)	지원기능, 보완기능, 거점기능, 문화기능
UN/ESCAP, 김안제(1981) 이동훈(2000)	결절기능, 중심기능, 거점기능
여흥구(1983)	경제기능, 문화기능
전석홍(1995)	행정중심기능, 경제기능, 거점기능
권오혁(1996), 강병수(2003)	중심기능, 산업기능, 개발거점기능
고영구(2003)	지역사회중심기능, 도시적 활동수행, 개발거점기능
본 연구적용	교역기능, 공공기능, 거점기능

자료) 이동훈(2000)에서 참조 인용

지금까지 농촌중심지의 중심성 기능은 <Table 1>과 같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촌중심지에 대한 보편적인 중심성 분류기능은 “도시적 계층의 중간규모에 해당되어 상위도시와 배후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결절기능, “배후농촌지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수행”으로서의 중심기능, “농촌정주생활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자극하거나 촉진시키는 핵”으로서의 거점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분류는 거점면 지역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기능과 미래기능, 개념적인 면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점면 지역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거점면 지역의 중심기능을 교역기능(쇼핑), 공공기능(서비스), 거점기

능(지역사회활동)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교역기능은 전통적 중심기능으로 배후농촌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여 지역 및 상위도시로의 판매 등을 통해 외부지역과 연결하는 상품교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능은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심기능으로서 사회·문화·위락 등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상업서비스를 포함하는 비교역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점기능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자극하거나 촉진시키며, 지역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허브로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된 8개 시범지구를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다음 식 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최종후, 2005). 또한 모집단 크기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8개 사례지역의 총 가구인 16,416세대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 1,000개 수준의 표본의 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n = \frac{Z^2 \cdot S^2}{d^2 + \frac{Z^2 \cdot S^2}{N}} \tag{식 1}$$

여기서, n : 표본의 크기 N : 모집단의 크기
 S : 표본표준편차 d : 오차한계
 Z : 정규분포의 Z값(95% 신뢰수준의 Z = 1.9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크기를 1,000부로 하여 가구규모에 따라 각 지구별로 설문지를 배분하고 이를 다시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외부방문객 포함) 가구수에 따라 재배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10월이며, 무작위 추출의 가능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개 지구(전남 옥과, 전북 사선, 충남 한산, 충북 청천, 강원 현내, 경북 신녕, 경남 진교)는 장날을 택하여 조사하였고 정기시장이 없는 경기 당우권역은 면내 행사가 있는 날을 택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용과 외부 방문자용을 별도로 작성하고 조사자가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피조사자와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Figure 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Figure 1 연구의 흐름도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중심기능 이용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대상은 지역주민과 소재지 방문객으로 설정하였으며 주민은 다시 면소재지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주민 대상 설문은 일반현황, 중심기능 이용특성, 면소재지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중심기능 이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재정립한 중심기능인 교역, 공공, 허브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쇼핑 14개, 서비스 13개, 지역사회활동 15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방문객 대상 설문은 거점면 소재지가 향후 외부 방문객에게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응답자 일반사항, 방문목적 및 성향, 면소재지의 현재와 미래, 면소재지 거주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면소재지+배후마을 주민 대상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거주기간 ○ 가구 구성원, 학생·영농후계자·직장인 숫자·통근지역 ○ 주택의 점유형태·유형·규모 ○ 차량보유대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이동시 교통수단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류(주곡, 1차 원료식품, 축산물, 2차 가공식품, 음료·주류) 구입장소 ○ 잡화류(의류, 화장품, 비누·세제) 구입장소 ○ 전문품류(전기·전자제품, 시계·보석, 철물·설비·건축자재) 구입장소 ○ 농업투입재(농기구, 농약·종자, 사료) 구입장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서비스(세탁소, 이미용업소, 목욕탕, 음식점·주점, 떡방앗간)의 이용장소 ○ 의료·복지서비스(통원 및 입원치료)의 이용장소 ○ 교육훈련서비스(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수강, 교육 및 소양교육)의 이용장소 ○ 전문서비스(관혼상제, 부동산, 금융·보험·증권)의 이용장소
지역사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활동(농민단체모임, 동창회·계, 사회단체활동)을 위한 방문장소 ○ 여가문화활동(체육, 종교, 낚시·바둑, 문화활동, 동호인 모임)을 위한 방문장소 ○ 경제활동(직장위치, 자영업고객, 제조업 원료·원자재 구입처, 제품 판매처) 장소 ○ 교류·교우활동(가장 가까운 자식집, 친척집, 친구집) 장소
면소재지 기능강화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중요도 순서 ○ 교류·산업·정주 거점화 방향 ○ 거점화 활동영역

Table 3 외부 방문자 대상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나이, 직업 ○ 지역과의 연고 : 출신지역, 친지 거주지 ○ 접근수단 : 차량보유 종류·대수, 이동시 교통수단
방문목적 및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목적 ○ 방문회수 ○ 방문시 동행자
면소재지의 현재·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소재지의 좋은 점: 일반 농촌 및 도시 대비 면소재지의 매력점 ○ 면소재지의 문제점: 농촌마을 및 도시 대비 면소재지의 거슬리는 요소 ○ 면소재지의 발전의견: 면소재지의 장래 전망, 장래 주요기능, 개발방향
면소재지 거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의사: 귀촌계획 여부 및 시기 ○ 이주유형: 가족동반 여부, 거주유형 ○ 이주 후 주거유형

실제 설문지는 면소재지 369부, 배후마을 381부, 외부 방문객 171부로 총 921부를 회수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대해 범주형 변수로 정리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쇼핑·서비스·지역사회활동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해 지역내·외의 점유율을 상대 비교하여 우세차이에 따라 이용성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면소재지 주민들과 배후마을 주민들 사이의 차이와 권역별 차이 여부를 알아보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신뢰수준 95%, 허용오차범위 ±3%).

III. 거점면 소재지 중심기능 이용특성

1. 지역주민 설문분석 결과

1) 일반사항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전체적으로 5~64세가 195명(26.0%)로 가장 많고 44세 이하가 24.6%, 45~64세가 44.4%, 65세 이상이 31.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으나 면소재지 거주 응답자 중 45~64세가 46.4%인데 비해 배후마을 응답자의 경우는 42.6%로 다소 낮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상업·서비스업이 약 1/3씩 점유하고 있으나 면소재지 거주 응답자의 경우는 상업·서비스업 종사자가 44.7%(농림어업 종사자 20.6%의 2배 이상)로 가장 높은 반면 배후마을 거주자의 경우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44.6%(상업·서비스업 종사자 20.5%의 2배 이상)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 정착유형은 고향이 61.7%로 가장 많고 다른 마을에서 이주(19.7%), 도시에서 이주(11.4%) 순이었으며 거주지별 거주기간 또한 2/3이상이 3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착유형에서 고향이 60% 이상을 점유한 결과와 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족구성원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45.2%로 가장 많고 대가족의

경우(부모+부부+자녀)는 20.7%에 불과하며, 학생이 있는 가구는 32.4%, 후계자가 있는 가구는 6.1%, 직장인이 있는 가구는 3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자의 통근지역은 면소재지가 53.4%로 절대 다수이고 인근도시(27.6%) → 군청소재지(9.8%)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면소재지 가구의 경우 자체지역 통근자가 47.9%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반면 인근도시 통근자는 31.8%로 높은 특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배후마을은 면소재지 통근자가 59.3%로 높고 인근도시 통근자는 23.2%로 낮아 면소재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주택이 86.8%(면소재지 가구 80.4%, 배후마을 가구 92.9%)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유형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처럼 단독주택이 약 8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차량보유현황을 살펴보면, 46.9%가 자전거를, 30.1%가 오토바이를, 21.5%가 경운기를, 62.3%가 승용(합)차를, 23.2%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토바이의 경우 배후마을이 37.5%로 면소재지 마을의 20.1%보다 거의 2배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면소재지 마을이 배후마을에 비해 짧은 쪽으로 편향되어 100m 이내의 경우 면소재지는 46.1%인데 비해 배후마을은 36.1%로 점유율이 낮고, 500m 이상의 경우 면소재지는 20.2%인데 비해 배후마을은 29.2%로 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동시 이용교통수단에 대한 조사결과 이동 목적지에 따라 교통수단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내의 이동은 70% 이상이 도보통행인데 배후마을의 경우 자전거+오토바이가 20.2%로 면소재지마을 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면소재지로의 이동은 소재지마을의 경우 56%가 도보로 이동하는데 비해 배후마을의 경우 도보통행은 23.1%에 불과한 반면 자전거+오토바이 24.7%, 승용(합)차+화물차 32.0%, 버스+택시 18.4%로 도보보다는 고속교통수단 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중심지/배후마을 주민설문분석 결과 유의차 있는 항목(신뢰수준 95%)

구분		유의확률P	구분		유의확률P	구분		유의확률P
일반 사항	연령	0.041	쇼핑	주곡	0.036	서비스	관혼상제	0.027
	직업	0.000		의류	0.008		부동산	0.022
	정착유형	0.000		전기, 전자제품	0.018	금융, 보험, 증권	0.023	
	거주기간	0.006	서비스	세탁소	0.000	지역 사회 활동	농민단체모임	0.026
	가족구성원	0.011		이미용업소	0.000		체육활동	0.044
	주택점유형태	0.000		목욕탕	0.048		종교활동	0.011
	주택유형	0.000		음식점, 주점	0.001		직장 위치	0.043
	버스정류장 거리	0.025		떡방앗간	0.000		자영업 고객	0.006
면소재지 이동수단	0.000	통원치료	0.001	친척집, 친구집	0.000			

2) 쇼핑

식품류 구매의 경우, 주곡 및 기타 곡류는 자가생산 또는 마을이 가장 많고 면소재지 가게, 5일 시장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원료식품(밀가루, 설탕 등), 축산물, 2차가공식품(햄, 소세지, 마아가린 등), 음료·주류의 경우는 응답자의 80% 내외가 ‘면소재지 가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 의존도를 보였다.

잡화류 구매를 위한 방문장소를 살펴보면, 의류 구입처는 전체적으로 인근도시 가게(34.1%), 면소재지 가게(27.3%), 5일 시장(20.8%) 순으로 나타났고 면소재지 응답자의 경우 면소재지가게 보다 인근도시가 1.5배 높은 반면 배후마을 응답자의 경우는 면소재지 가게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면소재지 가게가 40%를 상회하고 비누·세제의 경우는 면소재지가 3/4 이상의 압도적 점유를 보였으며 5일 시장은 약 6~7%에 불과했다.

전기·전자제품과 시계·보석 구매의 경우, 면소재지 가게가 약 30%, 인근도시 가게는 약 4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철물·설비·건축자재 등 중량이 많이 나가는 상품의 경우는 면소재지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면소재지 가구보다 배후마을 가구의 면소재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소재지 가구의 면소재지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투입재 구매를 위한 방문장소에 대해 응답자의 60~75%가 면소재지 가게를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며 면소재지 가구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성향을 반영하여 소비지수가 적게 나타났다.

권역별 이용 성향은 당우권역이 군청소재지 의존도(화장품구매:50%, 전자제품구매:57.1% 등)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청소재지와 면소재지와의 지리적 근접 결과로 판단된다.

3) 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 경우 60%를 상회하는 가구가 세탁소, 이미용업소, 목욕탕, 음식점, 주점, 떡방앗간 등을 이용하기 위해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이용자는 6.5~23.1% 범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면소재지 마을의 경우 지역내 이용률이 5~10% 범위의 차이긴 하지만 배후마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로는, 통원치료의 경우 면소재지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입원치료 시에는 응답자의 62.7%가 인근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원·입원 치료 모두 면소재지 주민의 인근도시 이용률이 배후마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 이용성향의 거주지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조사결과, 노령화, 젊은 층의 이촌 등 농촌인구의 질적 약화 현상이 반영되어 중·고교 재학생이 있는 가구는 약 1/3에 불과하였고, 학원수강자 및 교양·소양교육 참여자도 30% 수준에 머물렀다. 중학생의 경우 약 3/4가 면 자체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반면 고등학생은 약 2/3가 면 외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장소를 살펴보면, 관혼상제의 경우 군청소재지+인근도시의 이용률이 면소재지 이용률의 약 3배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은 면소재지 이용률이 약간 우세, 금융·보험·증권의 경우는 면소재지 이용률이 군청소재지+인근도시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주 활동무대가 상위 중심지역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고 금융·보험·증권의 경우 우체국·농협·보험대리점 등이 면소재지에 입지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 이용 성향은 당우권역이 군청소재지 의존도(목욕탕이용:52%, 통원치료이용:51% 등)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쇼핑기능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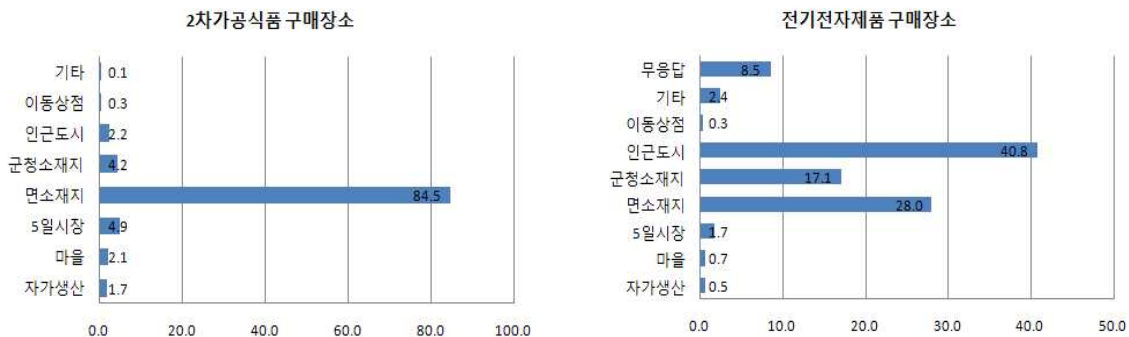


Figure 2 주요 품목의 구매성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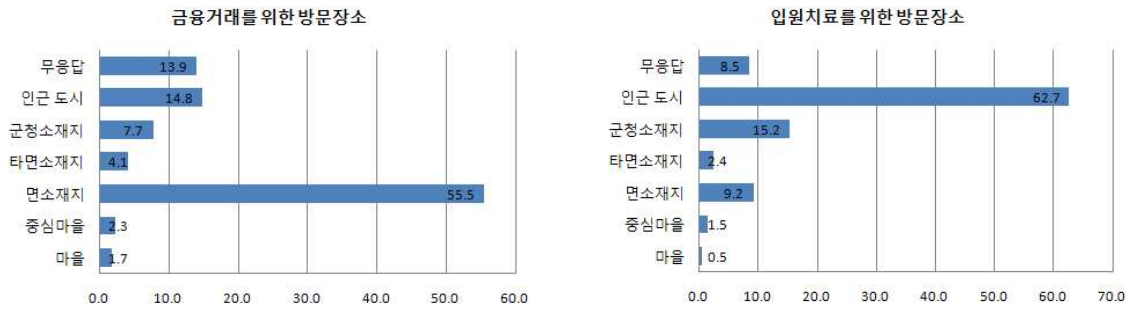


Figure 3 주요 서비스의 이용성향 비교

청소재지와 면소재지와와의 지리적 근접 결과로 판단된다.

4) 지역사회활동

NGO 활동장소에 대한 분석 결과, 농민단체 모임은 80% 이상, 사적모임은 약 65%, 사회단체활동은 60% 이상이 면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농민단체모임은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고 있으나 배후마을의 경우 지역내 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활동들은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활동 및 종교활동, 향토사랑모임의 장소에 대해 60% 이상의 응답자가 지역내부로 답하였고 동호인 모임은 지역내·외부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문화활동의 경우는 지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대조적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체육 및 종교활동에서만 거주지별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장소로는, 직장인의 경우 80% 이상이 지역내부에 직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지역외부에 직장을 갖는 경우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고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역내부고객이 외부고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의 원료구입처는 지역외부가 지역내부보다 약 1.5배 이상 점유율이 높은 반면 제품 판매처는 지역내부가 외부의 약 2배 높은 점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교우활동을 위한 방문장소 분석 결과, 가장 가까운 자녀집은 3/4 이상이 지역 외부에 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이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친척집은 지역 내가 지역외의 1.5배 가까이 되며 가장 가까운 친구집은 반대로 80% 이상이 지역 내에 있는 가운데 면소재지 거주자의 경우 지역 밖의 친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거주지별 통계적 유의차가 확인되었다.

권역별 이용 성향은 권역별로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데, 이는 지역사회활동은 지역적 위치의 영향은 적고 관계적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장래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의견

장래의 거점기능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 1, 2순위 모

Table 5 장래 거점기능의 중요도

		교류 거점	산업경제거점	정주생활거점	여가문화거점	교통 거점	지식정보거점	전체
1순위	빈도	78	258	105	123	149	35	748
	%	10.4	34.5	14.0	16.4	19.9	4.7	100.0
2순위	빈도	129	154	112	145	145	63	748
	%	17.2	20.6	15.0	19.4	19.4	8.4	100.0
3순위	빈도	153	116	108	126	147	96	746
	%	20.5	15.5	14.5	16.9	19.7	12.9	100.0
4순위	빈도	133	84	154	129	122	124	746
	%	17.8	11.3	20.6	17.3	16.4	16.6	100.0
5순위	빈도	146	77	141	140	87	155	746
	%	19.6	10.3	18.9	18.8	11.7	20.8	100.0
6순위	빈도	104	60	128	84	99	271	746
	%	13.9	8.0	17.2	11.3	13.3	36.3	100.0

두에서 산업경제거점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거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농업생산·가공·유통(53.9%), 서비스업(20.2%), 신산업(13.1) 순으로 나타났다.

교류거점의 방향으로는 도농교류(39.8%), 면소재지-배후마을 주민간(34.4%), 자체지역 주민사이(19.8%) 순으로 나타났고, 정주거점의 방향으로는 중심지-배후지역 공생이 절대적인 선호 방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거점화 활동영역에 대한 의견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문화·체육활동, 공공서비스 제공,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2. 방문자 설문분석 결과

1) 일반사항

전체 응답자의 3/4 이상이 54세 이하로 지역주민 응답자에 비해 젊은 편인데 이는 방문자의 이동성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직업은 3차산업 종사자(상업·서비스업, 공무원·유관기관, 회사원)가 대부분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의 연고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출신지는 군 내부지역과 외부지역 각각 51.8%, 48.2%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약 80%는 지역에 친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면소재지에 부모·형제가 거주하는 경우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수단 보유현황은, 자전거, 오토바이, 화물차 보유자가 각각 31.2%, 8.9%, 19.3%로 지역주민의 보유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으나(지역주민의 경우 각각 1/2, 1/3, 1/4) 승용(합)차의 보유율은 77.1%에 달해 지역주민의 보유율 6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지역 이동시 이용교통수단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2/3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1/4에 불과하였다.

2) 방문 목적 및 성향

면소재지 방문목적은 사업업무차(32.3%), 친지방문과 관광·휴식차 순이며 농·특산물구입 목적은 4.7%에 불과했다. 방문회수는 한 달에 1~2회와 일주일에 1~2회 방문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방문시 동행자에 대한 조사결과 47.1%가 가족과 함께하며 36.6%가 혼자 방문하고 친구·단체의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3) 면소재지의 현재와 미래

지역방문 응답자의 45.5%가 농촌마을대비 면소재지의

장점을 ‘주거환경이 쾌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 대비 면소재지의 장점으로는 ‘전원생활이 가능’과 ‘생활환경이 쾌적’이 35% 내외의 선호도를 보였고, 면소재지의 매력 요소는 주위의 자연환경(40.8%), 5일 시장, 시골스러운 거리모습, 시골의 인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된 모습, 주거환경 불량, 장사속 인심은 거의 같은 비율로 농촌마을 대비 면소재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권역별로 방문자의 의견은 통계적인 유의차가 확인되었는데 도시와 인접한 당우, 사선, 옥과, 진교권역은 ‘도시화된 모습’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데 비해 청천권역은 유명관광지 입구이어서 ‘장삿속 인심’을, 한산권역은 ‘지저분한 거리’를 크게 지적하였다. 도시대비 면소재지의 문제점으로 과반수 이상이 ‘교육·의료·문화 혜택에서의 소외’라고 응답하였으며 면소재지의 거슬리는 요소는 쇠퇴한 상점(56.2%), 부족한 주차시설, 아파트·가건물, 저질음식점 순으로 지적되었다.

면소재지의 장래 정비에 대한 조사결과 부분적으로 정비(54.7%)와 대폭 확장·재개발(33.9%)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면소재지의 장래 주된 기능에 대한 의견은 여가·문화 활동(40.0%)과 공공·복지서비스 기능(33.2%)이 높게 나타나 산업·경제 거점을 장래의 가장 중요한 면소재지 기능으로 제시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면소재지의 개발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개발(37.5%)과 정보화타운으로 신규조성(34.4%) 의견이 우위를 보였는데 이는 면소재지의 ‘대폭 확장·재개발’ 의견을 적극화한 결과로 사료된다.

4) 면소재지 거주의향

설문에 응한 방문자의 절반 이상이 면소재지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행 중에 있는 응답자는 5.7%에 불과하여 도시민 조사 결과와 거의 같은 성향이 나타났다. 권역별 분석결과 옥과, 당우권역의 경우 실행중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근접성·수도권 입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귀촌 시기는 은퇴 후가 절대적이고 귀촌시 가족 동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부부만 이주하겠다는 의사가 66.1%를 차지하는데 당우권역(수도권), 사선권역(전주시 인접), 옥과권역(광주시 인접)의 경우 전 가족 동반의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귀촌시 정주생활 유형에 대해서는 전면이주(46.8%), 5도2촌(24.3%), 2도5촌(28.8%) 순으로 나타났고 귀촌시 선호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거의 90%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권역별 중심기능 이용성향 유형화

본 논문에서는 쇼핑, 서비스,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주민들의 중심기능 이용특성을 파악하고자 먼저 지역내부의 중심기능 이용성향이 강할 경우 쇼핑, 서비스, 지역사회활동 항목에 대한 지역 내의 점유율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지역외부의 중심기능을 더 선호할 경우 쇼핑, 서비스, 지역사회활동 항목에 대한 지역 외의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쇼핑 · 서비스 · 지역사회활동 장소에 대한 『지역내 · 외 × 권역별』 우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례지역별로 지역내 · 외 점유율과 전체 평균 점유율 차이를 0~5%, 5~10%, 10~20%, 20% 이상 등 4단계로 차등화 하고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1, 3, 5, 7로 부여한 후 권역별로 전체 항목에 대한 우세항목의 비율과 총 득점을 항목수로 나눈 평균득점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6, 7, 8과 같다. 즉 전체 평균 점유율과 사례지역별 지역내 · 외의 점유율의 차이가 크거나 항목의 수가 많을 경

Table 6 권역별 중심기능 이용성향 차별화 분석 - 쇼핑

권역	지역 내					지역 외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당우					0	0	2	3	8	2	1	4.3
사선	10	1	2		0.9	1.5	2				0.1	0.1
신녕	7	3	4		0.9	2.4	1				0.1	0.1
옥과	10	2	1		0.9	1.4	2				0.1	0.1
진교	6	3	1		0.7	1.3	3				0.2	0.2
청천	8	2	2		0.8	1.6	2				0.1	0.1
한산	7				0.5	0.5	3	4	1		0.5	1.3
현내	7				0.5	0.5	3	2	2		0.5	1.3
평균	7.9	2.2	2.0	0.0	0.7	1.2	2.3	3.0	3.7	2.0	0.3	0.9

Table 7 권역별 중심기능 이용성향 차별화 분석 - 서비스

권역	지역 내					지역 외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당우			2		0.1	0.7		3	3	6	0.9	4.7
사선	2	2	2		0.4	1.3	5	1	1	1	0.6	1.4
신녕	3	4	2	2	0.8	2.8	2		1		0.2	0.5
옥과	6		3		0.6	1.5	4	1			0.4	0.5
진교	3	3	2	4	0.9	3.6	2				0.1	0.1
청천	2				0.1	0.1	3	4	2	3	0.9	3.3
한산	7	1	2		0.7	1.4	3			1	0.3	0.7
현내	3	3	3		0.6	1.9	1	3		1	0.4	1.2
평균	3.7	2.6	2.3	3.0	0.5	1.7	2.9	2.4	1.8	2.4	0.5	1.6

Table 8 권역별 중심기능 이용성향 차별화 분석 - 지역사회활동

권역	지역 내					지역 외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0~5%	+5~10%	+10~20%	+20%이상	우세수 /항목수	총득점 /항목수
당우	1	2			0.2	0.5	1	2	7	2	0.8	3.7
사선	4	3	2	1	0.7	2	4	1			0.3	0.5
신녕	4	4	3	2	0.9	3			2		0.1	0.7
옥과	2				0.1	0.1	3	2	6	2	0.9	3.5
진교	2	4	5	2	0.9	3.5	2				0.1	0.1
청천	4	2			0.4	0.7	4	3	2		0.6	1.5
한산	3	1			0.3	0.4	5	5	1		0.7	1.7
현내	3	2	5		0.7	2.3	3	2			0.3	0.6
평균	2.9	2.6	3.8	1.7	0.5	1.6	3.1	2.5	3.6	2.0	0.5	1.5

Table 9 권역별 중심기능 이용성향 차별화 분석종합

권역	지역내부지향			평균 득점	외부지역지향			평균 득점	판정
	우세여부				우세여부				
	쇼핑	서비스	활동		쇼핑	서비스	활동		
당우				0.4	○	○	○	4.2	외부의존형
사선	○		○	1.6		○		0.7	내부자족형-서비스 외부의존형
신녕	○	○	○	2.7				0.4	내부자족형
옥과	○	○		1.0			○	1.4	내부자족형-서비스 외부의존형
진교	○	○	○	2.8				0.1	내부자족형
청천	○			0.8		○	○	2.0	외부의존형-쇼핑 내부자족형
한산		○		0.8	○		○	1.3	외부의존형-서비스 내부자족형
현내		○	○	1.6	○			0.9	내부자족형-쇼핑 외부의존형

우 우세를 보이는 중심지에 대한 이용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지역별 쇼핑·서비스·지역사회활동 3개 부문의 우세항목율과 평균득점을 종합하고 다시 3개 부문에 대한 전체 우세항목수·평균득점을 계산해 보면 각 부문의 평균득점이 지역내부에서 높은 부문(지역내부지향)과 지역외부에서 높은 부문(지역외부지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9 참고). 중심기능 이용성향이 지역 내·외부 각각에 대해 우세항목수가 2 이상이고 평균득점이 1.0 이상이면 각각 내·외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3개 부문 중 1개 부문의 지향성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다시 세부지향을 부차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구분결과를 종합하면 <Table 10>과 같이 중심기능 이용성향에 따라 내부자족형과 외부의존형으로 유형화된다. 즉, 지역주민이 중심기능 이용시 지역내부의 중심기능을 더 선호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경우 거점면 소재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내부자족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반대로 지역외부의 중심기능을 더 선호하고 이용빈도도 지역외부에서 더 높을 경우 거점면 소재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외부의존형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0 중심기능 이용성향 유형화 결과

내부자족형(5)	완결형 : 진교, 신녕 - 쇼핑 외부의존형 : 현내 - 서비스 외부의존형 : 사선·옥과
외부의존형(3)	완결형 : 당우 - 쇼핑 내부자족형 : 청천 - 서비스 내부자족형 : 한산

진교, 신녕, 현내, 사선, 옥과권역이 속하는 내부자족형은 지역 내 중심기능에 대한 이용성향이 강하므로 주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고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중심기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당우, 청천, 한산권역이 해당하는 외부의존형은 지역 내 중심기능에 대한 선호성이 낮으므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축제나 포럼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식품을 중심으로 지산지소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산 원자재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내부 순환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기능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이용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8개 시범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점면 소재지는 식품·기초생활 필수품·중량 상품 등의 지역유통허브로서의 기능은 매우 충실한 편이나 고급 및 내구재 상품의 지역이탈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점면 소재지는 기초·일상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지역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공공적·지역밀착적 서비스의 경우도 나름대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고급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부 의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지역사회활동은 지역 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거점면 소재지가 점차 쇼핑 및 서비스제공기능과 함께 지

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방문객의 면소재지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거점면 소재지가 정주의 쾌적성, 환경의 어메니티 지향성, 지역 사회 교육·의료·문화기능의 충실성이 회복된다면 가족단위의 외지인 방문과 정주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쇼핑·서비스·지역사회활동 등 3개 부문에 대해 우수항목을·평균득점을 종합하여 중심기능 이용성향을 내부자족형(진교, 신녕, 현내, 사선, 옥과 권역)과 외부의 존형(당우, 청천, 한산 권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권역별로 중심기능 이용성향에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면소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정비 방안 수립 시 중심지 위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심기능 충족을 기초로 함은 물론 다양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비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시행한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사업 중 『거점면 소재지 유형별 개발모델 정립』 연구 결과의 일부임

참고문헌

1. 강병수, 2003, 소도읍의 개발모형 설정과 발전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Vol. 15, pp.7-32
2. 고영구, 김광남, 2003, 충북지역 소도읍 육성방안, 충북개발연구원
3. 김장현, 박종택, 박경현, 200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 농림부(농촌정책국),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사업)
5. 박용진, 2004, 과소화 농촌지역의 중심기능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성주인, 이동필, 권인혜, 2008,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송미령, 김정섭, 박주영, 2009, 농업전망 2009,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23-450
8. 이동훈, 2000, 농촌중심도시의 중심성지수와 정주생활권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 최종후, 2005, 설문조사 처음에서 끝까지(제 3장 표본추출법), 자유아카데미
10. 한국농촌공사, 2007,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초안] - 경기 여주군 당우, 충북 괴산군 청천, 전남 곡성군 옥과, 경남 하동군 진교 권역
11. 한국농촌공사, 2008,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초안] - 강원 강릉시 현내, 충남 서천군 한산, 전북 임실군 사선, 경북 영천시 신녕 권역
12. 행정자치부, 2002, 지방소도읍 육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13. Land Use Consultants, SERRL and Emma Delow, 2004, The Role of Rural Settlements as Service Centers, The Countryside Agency

접 수 일: (2009년 11월 5일)
 수 정 일: (1차: 2009년 11월 16일, 2차: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26일)
 ■ 3인 익명 심사필